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영업한다

오늘부터 광주·전남 헬스장·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1시간 연장
5인 이상 모임금지 14일까지 ... 방역지침 위반업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8일부터 광주와 전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의 헬스장,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허용 시간이 밤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비수도권 2단계, 수도권 2.5단계의 현행 거리두기 체제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유지된다.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2주간 영업을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6일 이런 내용의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조치 조정방안'을 확정했다.

중대본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 고충을 고려해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감소하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 입석 공연장,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존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더 매장 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이 가능하다.

중대본은 기존 매장 영업 제한 시간(밤 9시) 유지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으나,

광주시와 전남도는 시민 불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고려해 중대본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다만, 수도권은 지역 발생 확진자 수가 200명대 중반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어 확산 위험이 크다고 평가됨에 따라 밤 9시 매장 영업 종료 지침이 유지된다.

광주와 전남에선 코로나 19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다.

휴일인 7일 오후 6시 현재 광주에선 신규 확진자가 7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는 190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자 7명 중 5명은 안동우 교회 관련이었으며,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 1명, 서구 예수소망교회 관련 1명 등이다. 전남에서는 주말인 지난 6일 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는 766명이 됐다. 휴일 신규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문 대통령 “신안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전폭 지지”

제1호 지역균형 뉴딜 첫 행사
전남형 상생일자리 12만개 창출

전남의 해상풍력이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신재생에너지산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수 있을 지 주목을 받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제1호 지역균형 뉴딜 투자'에 참석해 한국판 뉴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는 등 기대감을 높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송배전 공동접속 설비 구축,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등에 있어서 정부의 선제적인 투자 및 조치도 가능할 전망이다.

현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 추진을 위한 '제1호 지역균형 뉴딜투자'가 지난 5일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부처 장관, 국회의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전 약 8기에 해당하는 8.2GW 세계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노사민정 협약식'도 함께 열려 주민 고용과 이익 공유를 핵심으로 한 '전남형 상생일자리'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8.2GW의 신재생에너지는 연간 약 10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이는 소나무 약 7100만 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또 한화건설과 두산중공업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계획을 발표해 3단계로 추진될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출발을 알렸다. 향후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한전·SK E&S 등 민간발전사, 씨에스윈드·삼강엔텍 등 해상풍력 제조업체, 지역 주민의 참여로 조성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김영록 전남지사, 서삼석 국회의원 등과 함께 신안군 임자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풍력발전기 모형을 단상에 꽂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48조원이 투자되는 해상풍력발전단지는 한국판 뉴딜이 추구하는 '민간주도, 정부지원'의 선도적 모델로, 450개 기업 육성, 12만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이 이뤄진 전남형 상생일자리 지역주민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주민들에게 투자 수익금과 REC(재생에너지 증명) 가중치 수익금(총사업비의 4% 투자 시 약 1500억원)이 발생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에는 기본지원금(매년 5억원)과 특별지원금(1600억원, 1회), 지역발전기금(발전사)을 조성해 기반시설 확충 등 지역발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협약식으로 그동안 전남이 요구해온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및 예비타당성 조

사 면제, 관계법령 제·개정 등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주요 현안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목포는 해상풍력 물류의 중심지가 되고, 영암과 신안에는 대규모 해상풍력설비 제조 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신안과 목포, 영암을 비롯한 전남 주민들과 어업인 단체 지역 노사 18개 발전사와 제조업체, 대학이 함께 이룬 쾌거"라고 치하했다.

이날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건설에 전남이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뒤 여수 중심의 영호남 10개 사군을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개최지로 결정해줄 것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알립니다

호남의 리더 당신을 모십니다



김정운



유현준

양정무

김대식

강신주

고수들의 명 강연...지역 최고 인적 네트워크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제 9기 원우 모집

광주일보가 주최하는 고품격 아카데미에 광주·전남 지역 각계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3월부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각 분야 유력인사들이 참여하는 1년 과정의 '제9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개설합니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수준 높은 강의와 함께 각종 공연 등 문화 프로

그램을 제공합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와 해결책을 집중 탐구하는 최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수강생 여러분께 호남 최고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은 지역사회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 가족으로 모시는 교육과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 인원 : 00명
- 지원 자격 : 기업 경영권 및 임원, 국회의원·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 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사회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체육계 등 각 분야 전문가
- 교육 기간 : 2021년 3월-2021년 11월
- 강의 시간 : 매주 화요일 저녁 7시-8시30분 (호텔식사 제공)
- 원서 교부 및 접수 : 2월 19일까지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 서류전형 후 개별통보
- 수강료 : 550만원 (부가세 포함)
- 문의 : 광주일보 편집국 062-220-0663

光州日報社

대권 참정들 설 호남 민심 구애 ▶3면

코로나 시대 관광 전남이 뜬다- 순천 ▶9면

돌아온 브룩스 KIA 캠프 합류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생명·꿈·희망
Land of Life, Best Jeonnam

전남형 뉴딜로 대한민국 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융복합 생명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e-모빌리티



데이터 신산업



초대형 과학기술 인프라



스마트 지능형 항만



스마트 농어업



태양광 · 풍력 · 드론

전라남도